



함께하는 도약 다시 뛰는 학생사회

인하대학교 제41대
총학생회 선거 공약자료집

인하대학교
제41대
총학생회 선거

공약자료집

함께하는 도약
다시 뛰는 학생사회

인하대학교 제41대 총학생회 선거본부

정후보 전승환

정치외교학과 15

- 1996 인천광역시 출생
- 2015 작전고등학교 졸업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학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기획국원
학생자치기구행정개혁위원회 위원
- 2016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기획국장
정치외교학과 회칙제정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회칙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2017 사회과학대학 새내기배움터 정치외교학과 운영위원
- 2018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인천지방법원)
- 2019 사회과학대학 새내기배움터 운영위원
대동제 IN-SIDER 서포터즈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수위원회 위원
2039 가입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외소통국장
- 2020 사회과학대학 새내기배움터 운영위원
인천 청년네트워크 2기 위원
중앙회칙개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총학생회 대표자 선거 정후보 입후보



제41대 총학생회장 정후보 출사표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모두들 얘기합니다. 학생사회는 이제 끝이라고,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사라져갈 것이라고. ‘학생사회가 무슨 소용이냐’, ‘학생사회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냐’며 학생 사회에 관심을 끄라고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총학생회는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투표가 성사되지 못해 꼬박 4년째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단과대 학생회와 과학생회는 출마자조차 없어 학생회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사회가 포기해 익숙해졌습니다. 문제의 개선 대신 외면과 은폐를 반복해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학생사회를 포기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학생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학생사회의 자산은 언제나 우리 학생들이었습니다.

공약을 살펴보고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며 학생회에게 건강한 비판을 하는 학생들이 남아있습니다. 학생사회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학생들이 남아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실습실에서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학생사회가 그 보답을 할 때입니다.

학생사회가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학생사회에 남아있던 학생들에 대한 보답이며, 학생사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생사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학생사회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학생 여러분을 향해 가겠습니다. 학생사회가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부후보 박동준

일본언어문화학과 13

- 1994 강원도 춘천시 출생
- 2013 춘천고등학교 졸업
인하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 입학
- 2016 공군 병장 만기전역
- 2019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2020 문과대학 새내기배움터 준비위원회 빨간손 부대장
인하대학교 중앙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총학생회 대표자 선거 부후보 입후보



제41대 총학생회장 부후보 출사표

.

“총학생회? 그거 축제 말고 뭐 더 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수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 총학생회의 역할은 매 학기 교내 행사를 치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간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셨던 전임자들의 수고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총학생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보다 더 큰 정당성이 필요함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교내 행사 이외에는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총학생회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간의 공백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총학생회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총학생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우리의 권리는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권리는 선택입니다.

어떤 총학생회를 만들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총학생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를 위한 더 나은 길이 제시되었을 때, 그 길을 선택할 권리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총학생회의 역할이란 여러분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길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총학생회 대표자 선거 부후보 일본언어문화학과
박동준

목차

공약기조	06p
복지공약	08p
학생자치공약	21p
교육·학사공약	33p
협력·협상공약	46p

공약기조

어떤 이들은 학생들이 학생사회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난 4년간 침묵으로 외쳤던 것은 새로운 총학생회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총학생회를 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변화하라.”

변화하지 않는다면 도태된다는 것, 새로운 총학생회가 아니라면 학생들에게 총학생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총학생회가 학생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라고는 수백만 원어치 간이영수증이 회계감사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되는 시스템 따위였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학생들에게 우리의 재정은 투명하다며 자랑하는 모습에 오히려 학생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학생회로부터 왜 사업을 맡겨야 하는지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채 사업명만 바뀌는 사업들을 우리는 매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위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대하는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인하대학교의 실상과 현재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는 끈질긴 협상보다 무책임한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총학생회를 세워야 합니다. 구태에서 벗어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학생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학생회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믿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증명하겠습니다.

그 바탕은 투명한 재정이 뒷받침할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제도의 보완과 개혁을 통해 이루겠습니다.

과거와 같은 외교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생 대표의 책임감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학생만을 생각하겠습니다. 투쟁으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본 선거본부의 정책은 우리 학교 학생사회에 대한 성찰입니다. 학생사회가 앞으로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나아가야 하는가를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복지 공약에서는 학생회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학생자치 공약에서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무엇이 그 방법인지, 교육·학사 공약에서는 무엇이 우리의 자부심이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협력·협상 공약에서는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며 책임이란 무엇인지 숙고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총학생회, 학생 여러분께 선택받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총학생회는 여러분의 떳떳함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학생사회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총학생회, 학생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학생사회를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우리 정책의 시작입니다.

복지 공약



복지공약 기초

여러분에게 학생회란 무엇인지 다시 여쭙습니다.

사물함이나 배정해 주면 그만인, 그저 시험기간에 맞춰 간식을 나누어주면 그만인 학생회는 그만두겠습니다. 학생회란, 총학생회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학생회의 복지사업이란, 학생회의 복지정책이란 무엇인지 숙고하겠습니다.

학생회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곳입니다. 누구나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니지만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학생회여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어드릴 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원망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학생회는 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신다면 총학생회에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웃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

배경 및 현황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노무 관련, 자취방 등 임대차 관련, 폭력 또는 성문제와 같은 범죄 관련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제를 받기 위한 수단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방법을 알더라도 금전적인 이유로 인하여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교내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등 다양한 법률자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많지만, 각 기관마다 한계가 분명해 학생들의 법률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약추진 방향

| 총학생회 법무실 운영

학생들의 대표기관인 총학생회는 법률적으로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될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더 이상 무법지대에 놓이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자치기구 간 업무 진행을 위한 학생회칙 유권해석부터 교육당국 및 대학본부의 교육정책, 외부기관과의 업무 제휴 등 다양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게 되어 학생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총학생회 법률자문변호사 계약

총학생회에 자문 변호사를 두어 학생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문제, 자취생들의 주거 계약 문제, 법률적 구조가 필요한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 법적 자문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총학생회 자문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공약이행계획

목표 |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들이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 분쟁, 자취방 계약 분쟁 등 법적 분쟁 해소
자문 변호사 지정으로 총학생회의 학교본부 또는 학생자치기구 간 법률대응체계 구축
학생회칙 개정 시 법률자문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회칙 개정 수행

담당부서 |

총학생회 법무국

이행기간 |

2021년도 1학기 6월부터 2021년 12월 31일 임기 종료 시까지

이행방법 |

총학생회 조직 내 법무국 설치
1학기 이내에 자문 변호사 계약 완료
인천광역시 내 변호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침해 관련 법률자문 실시
법무국과 1차 상담 이후 변호사의 자문 필요시 자문 변호사와 상담 실시

재원조달 및 예산추정 |

- 약 11,000,000원 (생협지원금 1,100만)
- 1) 자문변호사 계약 월 80만원 추산 (월 5회 상담 기준)
 - 2) 추가 자문 1회당 150,000원 추산
 - 3) 추가 자문 한도 5회 계약 예정

정신과 및 심리상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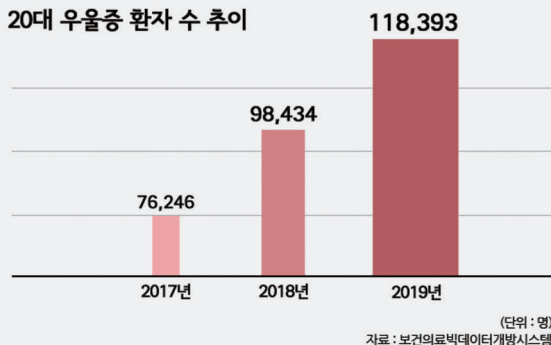
배경 및 현황

20대를 ‘한창 좋을 나이’라 하며 꿈과 미래를 가슴속에 품을 때라고 하지만 동시에 취업과 진로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하고 걱정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정신과 및 심리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치료나 상담을 받지 못해 악화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나를 인식하기 위한 휴식의 과정이며 더 나은 나로 거듭나기 위한 탐색의 과정입니다.

교내에도 심리 상담센터가 존재하지만 대기자가 많아 원하는 시기에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약추진 방향

| 심리상담소와 업무협약 체결

인하대학교 인근 심리상담소와 업무협약을 맺어 심리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가 지원하겠습니다.

| 정신의학과 병원과 업무제휴

인하대학교 인근 정신의학과 병원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지정병원을 이용할 시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행계획

목표 |

교내 심리상담센터 정상 운영 난항으로 대체 상담 기관 필요
20대가 겪고 있는 취업 및 학업 스트레스 등 일상생활에서의 정신적 어려움 해소

담당부서 |

총학생회 사업국

이행기간 |

계약 완료 시점부터 2021년 12월 31일 임기 종료 시까지

이행방법 |

1학기 이내에 학교 인근 정신의학과 병원과 제휴
학교 인근 심리상담센터와 계약을 통해 인하대학교 재학생 심리 상담 비용 지원

재원조달 및 예산추정 |

약 5,000,000원 (생협지원금 500만)

- 1) 심리상담 지원비용 500만원
- 2) 20명 기준, 단기 상담 1인 당 최대 6만원 지원
- 3) 10명 기준, 장기 상담 1인 당 최대 30만원 지원

학생 기본권 보장 및 침해 대응

배경 및 현황

지난 1학기, 전반적인 학사관리와 관련하여 담당 교수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권리가 빈번하게 침해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는 교수재량이라는 변명으로 학생이 아닌 교수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부당한 침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부터 학교본부는 학생들의 지도교수 상담을 유도하고자 지도교수 상담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을 열람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적 열람은 추후에도 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하지 못하게 되어 학생들의 성적이의제기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공약추진 방향

| 성적이의제기 기간 확대

지도교수 상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적을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성적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지도교수 상담을 한 학생들의 수는 대학평가항목 중 하나로서 학교 이미지 유지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입니다. 그러나 학교본부의 실적 쌓기를 위해 성적이의제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열람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도교수 상담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인 학생들의 성적이의제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 기간을 확대하거나 이의제기 기간 내에 지도교수 상담을 하지 못한 학생들도 성적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 기본권 침해 대응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교수와 학교본부로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침해받는 학습권을 총학생회가 지켜내겠습니다. 피해 발생 시 교육당국 및 유관기관 협력, 법적소송 등을 통하여 학교본부와 교수회에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공약이행계획

목표 |

학생 기본권 보장을 통해 교육서비스 수요자 지위 확립
학교본부와 교수들로부터 발생하는 학생 기본권 침해 대응
모든 학생들의 성적 열람 및 성적이의제기 권한 보장

담당부서 |

총학생회 정책국, 법무국

이행기간 |

당선 즉시부터 2021년 12월 31일 임기 종료 시까지
성적이의제기 보장의 경우, 2021년 2학기 이내 완료, 2022년 1학기부터 시행

이행방법 |

교무처 및 학사관리팀과 성적이의제기 기간 확대 논의
대학발전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성적이의제기 기간 연장 안내 및 홍보
교육당국 또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침해 발생 시 학교본부 및 교수회 대응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통해 학생 기본권 침해 대응 및 보상책 요구

재원조달 및 예산추정 |

학교협약사항

남학생 휴게실 환경개선

배경 및 현황

인하대학교 남학생 비율은 전체 재학생의 약 60%를 차지하지만 교내 남학생 휴게실은 2호관에 한 곳만 존재할 뿐입니다.

작년 인하대학교 총대의원회가 실시한 1학기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42.12%의 학생들이 휴게공간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남학생 휴게실 지원 요구안이 매년 대학발전위원회에 상정되고 있으나 기한이나 배정 예산 등이 정해지지 않은 무의미한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약추진 방향

| 남학생 휴게실 지원 예산 배정

협소하고 비위생적인 남학생 휴게실을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남학생 휴게실 환경개선에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파손된 2층 침대 및 소파 등 열악한 침구류들을 교체하는 것만이 아닌, 새롭게 단장하여 남부럽지 않은 남학생 휴게실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약이행계획

목표 |

환경이 열악한 남학생 휴게실 개선

기존 침구류, 오래된 전자제품 교체 및 인테리어 개선으로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

담당부서 |

총학생회 사업국

이행기간 |

정기총회 가결 이후 2021년 12월 31일 임기 종료 시까지

이행방법 |

총학생회 예산 중 남학생 휴게실 지원 예산 배정

방학 중 남학생 휴게실 인테리어 개선

남학생 휴게실 가구 전면 교체

기존 학기당 2회 실시하던 세탁을 월 1회 세탁으로 확대하여 쾌적한 환경 유지

재원조달 및 예산추정 |

약 15,000,000원 (생협지원금 1,400만, 자치비 100만)

1) 인테리어 개선비용 (생협지원금 1,400만, 자치비 50만)

2) 운영비용 (자치비 편성 남학생 휴게실 지원금 50만)

남학생 휴게실 교비지원금 확보 시 운영비 편성 및 비품 추가 구매 예정

학생 자치 공약



학생자치공약 기초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활기를 잃은 학생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부재입니다. 단순히 학생자치기구의 부재, 학생대표의 부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의 부재, 제도의 부재, 원칙의 부재, 도덕의 부재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틀린 일인지 성찰할 수 없는 정치의 부재입니다.

지난 10년간 학생사회를 살아 숨 쉬게 했던 원동력은 개혁이었습니다. 학생회의 부조리에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학생대표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고치고 또 고쳐나갔습니다.

개혁이라는 원동력이 학생사회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 학생사회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부재가 개혁의 자리를 밀어내고 학생사회의 중심을 차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재는 곧 포기였고 안주였습니다.

우리는 그간 잊고 있었던 학생사회의 원동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학생사회가 가장 빛나던 순간에 항상 개혁이 그 중심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사회가 다시 살아 숨 쉬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변명은 대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실천하겠습니다.

총학생회 업무 개선

배경 및 현황

총학생회의 업무 시스템이 망가진 지 오래입니다.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체계와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업무의 담당자인지, 누가 책임자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업무도 매번 달리,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학생사회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재량껏 처리했을 뿐이라는 말로 변명되어 왔습니다. 재량이란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것입니다.

사람은 변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공약추진 방향

| 총학생회 업무 내규 제정

총학생회의 업무 원칙들을 명문화한 내규를 제정하여 가감 없이 공표하겠습니다.

후임 총학생회가 공표된 내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생 여러분에게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야간규찰대와 비룡대의 근로장학생 선발 등 그간 관례나 개인의 재량에 맡겨온 영역들이 새로이 제정될 내규에 따른 체계와 절차로

운영됩니다.

어쩌면 실망스러울 정도로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무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총학생회의 업무 시간부터 바로잡겠습니다.

| 총학생회 재정 운영 개선

재정이 투명해야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치기구의 재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양식을 개발하고 배포하겠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이월금이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될 것입니다.

후임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임기 말에 예산을 모두 탕진하는 사태가 방지됩니다.

| 총학생회 기록물 관리 개선

이전까지 빈번하게 전·후임자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또한 기록물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기록물이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등 기록이 남겨져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담당자나 책임자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총학생회는 매년 초기화되고 있습니다. 전임자의 기록이 남아있질 않으니 총학생회의 잘못은 똑같이 반복되며, 같은 업무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기 급급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기는커녕 같은 실수만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보존기한을 설정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전·후임자가 문서를 악의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자료는 다른 자료들보다 엄격한 기한을 설정하여
자의적인 문서 폐기를 원천 방지하겠습니다.

총학생회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총학생회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하고 보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총학생회가 단절되지 않고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약이행계획

목표 |

업무 내규 제정을 통한 총학생회 업무 체계화 및 규칙적이고 투명한 학생자치기구로 변모

담당부서 |

총학생회 사무국

이행기간 |

당선 즉시부터 2021년 12월 31일 임기 종료 시까지

이행방법 |

총학생회 업무별 내규 제정 및 공표

총학생회 회계자료 양식을 개발해 각 단위 학생자치구에 배포

차기 총학생회 업무 수행을 위한 이월금 예산 편성

총학생회 자료 보관 규정 마련으로 추후 업무 인수인계 체계화

재원조달 및 예산추정 |

제도개선사항

총학생회 홈페이지 구축 시, 약 5,000,000원(생협지원금 500만)

학과 학생회비 납부 개선

배경 및 현황

현재 과학생회비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학과별 개강총회 등에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과학생회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납부방식이 현금수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횡령의 위험성에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학생회비의 환불의 경우,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수년 전에 발급한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 또는 재정상황을 변명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약추진 방향

| 과학생회비 납부 전산화

과학생회비 또한 등록금 납부 시 총학생회비와 함께 전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생회비 현금수령을 통한 공금횡령 시도는 차단될 것입니다.

| 과학생회비 환불규정 마련

같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선된 학생회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학생회비 환불 규정을 마련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생회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전과 또는 자퇴 등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해당 학과에 적을 두지 않게 된 때, 과학생회비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공약이행계획

목표 |

과학생회비의 납부 전산화로 횡령 가능성 원천 차단
학과 학생회 재정건전성 확보 및 과학생회비 환불 규정 체계화

담당부서 |

총학생회 정책국, 법무국

이행기간 |

2022년 1학기 등록금 납부부터 시행

이행방법 |

등록금 납부 시 과학생회비를 함께 전산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
학과 학생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학생회칙 개정 후 '학생회비 환불에 관한 세칙'을 제정해 학생회비 환불 규정 마련

재원조달 및 예산추정 |

제도개선사항

봉사장학금 개선

배경 및 현황

봉사장학금은 인하대학교 학생사회에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그러나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수혜 대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이 각 학생자치기구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봉사장학금 수혜자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규정의 미비함을 이용해 봉사장학금 수혜와 관련한 횡령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제도적으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자의 명단을 공개해 공정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공약추진 방향

| 학생자치기구 임원 명단 공개 의무화

학생자치기구에 종사하는 모든 임원들의 명단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이미 일부 자치기구에서는 임원 명단을 자진하여 공개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임원 명단 공개 의무화를 통해 학생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봉사장학금 수혜자 명단 공개 의무화

봉사장학금의 수혜자는 인하대학교 학생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학생들로서 그 공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학생사회의 공인(公人)으로서 봉사장학금 수혜자 명단은 학생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봉사장학금 수혜자 명단의 공개는 학생자치에 투명성을 강화해 장학금 부정수령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봉사장학금 수혜 기준 정립

한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장학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TO는 고정적이지만 그 TO에 누가 들어갈지는 자치기구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직급에 따라 수혜 받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미 작년 12월 대의원총회에서는 일부 대의원들이 ‘직급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도 수혜를 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해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는 자치기구장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지해 장학금 수혜자가 결정된다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지속될 경우 자치기구장을 중심으로 봉사장학금과 관련한 횡령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봉사장학금 수혜 기준을 마련하여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고 학생사회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약이행계획

목표 |

봉사장학금은 수령자 기준을 설정하여 부정수령 가능성 차단
봉사장학금 수령자 명단을 공개해 학생사회의 투명성을 재고
학생자치기구 임원 명단 공개를 통한 학생들의 신뢰 회복

담당부서 |

총학생회 정책국, 법무국

이행기간 |

2021년 2학기부터 시행

이행방법 |

각 단위 자치기구 임원 명단의 공개 의무화
봉사장학금 수령자 명단 공개 의무화
봉사장학금 수령자 명단의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공개
학생회칙 개정 후 '봉사장학금 대상에 관한 세칙'을 제정해 봉사장학금 수령 기준 체계화

재원조달 및 예산추정 |

제도개선사항

교육 학사 공약



교육·학사공약 기조

우리 학교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 우리 학교가 발전하는 방법입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이 더 좋은 곳에서 공부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의 원동력일 뿐 아니라 대학 교육의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학습권 보장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의 출발입니다.

본 교육 공약은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다중전공의 확대와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인하대학교의 특색을 살리고 학생들의 학사관리에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중전공의 길을 넓혀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사 제도를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더 큰 만족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자랑이란, 언제나 우리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학점세이브제 도입

배경 및 현황

2016년부터 다중전공은 졸업 필수 요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복수전공과 연계전공, 부전공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전공과 다중전공의 전공 강의의 시간이 겹치거나 여러 다중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정규학기 이내에 이수하지 못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사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공계열의 경우 1학년에 한정하여 최대 학점을 21학점으로 확대하였으나 타 계열의 경우는 19학점으로 기존과 같아 학사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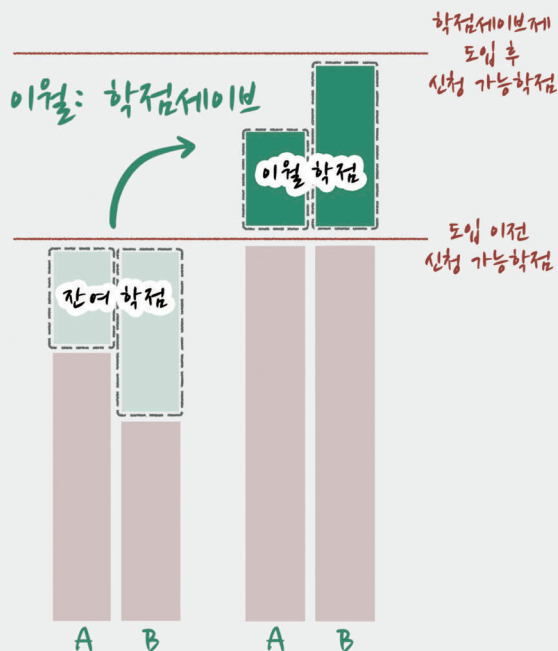
공약추진 방향

| 학점세이브제 도입

학점세이브제는 수강신청 당시 신청 가능한 최대 학점보다 적게 신청했을 경우, 다음 학기에 적게 신청한 만큼 추가로 학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항공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이미 다수의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학생들의 학점관리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는 2009학년도 신입생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현재와 같이 학점세이브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점세이브제 운용 방식에는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며 학교마다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타 학교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장 유용한 모델을 수입하거나 기존 2009년도에 시행했던 모델의 재도입 등 다양한 방안들을 열어놓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이행계획

목표 |

여러 다중전공을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학점 및 학사관리에 유용성 및 편의성 제공
실질적인 등록금 완화 효과 기대

담당부서 |

총학생회 정책국

이행기간 |

2021년 2학기 이내, 2022년 1학기부터 시행

이행방법 |

학점세이브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대학 사례 분석 및 기대효과 예측 분석
교무처 및 학사관리팀과 학점세이브제 도입 논의
대학발전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학점세이브제 도입 안내 및 홍보

재원조달 및 예산추정 |

학교협의사항

다중전공 정보공개

배경 및 현황

2016년에 입학한 신입생부터 심화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등의 다중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공 별 수강인원 및 수용 여건, 수강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점을 기준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다중전공 신청에 실패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중전공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부재하여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는 불편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다중전공 합격 학점이 매년 변하기 때문에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다중전공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학사관리의 유용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이 필요합니다.

공약추진 방향

| 다중전공 합격 기준 공개

다중전공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학생들의 학사관리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려 불편을 야기하며 희망하는 전공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정보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공별 다중전공 합격 기준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학생들은 희망하는 다중전공을 신청하기 위해 학사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 다중전공 수용 인원 공개

다중전공 선발 기준인 학점뿐 아니라 다중전공 수용 인원도 공개됩니다.

현재 전과 관련 전입-전출 현황 정보가 제공되는 것처럼 다중전공 또한 이전까지 얼마나 지원했고, 얼마나 선발됐는지 등의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합격 기준 및 다중전공 수용인원에 대한 정보공개는 신청 직전 학기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다중전공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행계획

목표 |

전공별 다중전공에 관한 합격기준 및 합격자 정보 등을 공개하여
다중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
지속적인 자료 축적으로 다중전공 신청 활성화

담당부서 |

총학생회 정책국

이행기간 |

2021년 1학기 이내, 2021년 2학기부터 시행

이행방법 |

교무처 및 학사관리팀과 다중전공 운영방식 개편 논의
전공별 다중전공 신청자 합격 기준 및 합격자 정보 등 취합을 통해 공개 방식 논의
총학생회-교무처-단과대학 행정실 간 정보공개 범위 논의 및 시행일자 결정
다중전공 정보공개 안내 및 홍보

재원조달 및 예산추정 |

학교협약사항

기초교양필수 Pass/Fail 전환

배경 및 현황

현재 인하대학교는 생활한문, 글쓰기와 토론, 프로네시스 세미나(前 인하 새내기 세미나), 크로스오버 등의 강의를 기초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기초교양 강의의 상대평가로 인하여 일부 학생들은 고학년이지만 전공학점 취득이 아닌 기초교양 강의를 재수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서울 상위권 대학은 교양필수 강의들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공약추진 방향

| ‘생활한문’, ‘글쓰기와 토론’ 성적평가 Pass/Fail 전환

‘생활한문’과 ‘글쓰기와 토론’의 성적 평가 방식이 다른 기초교양필수 강의와 같이 Pass/Fail로 전환됩니다. 1학년 과정에서는 기초교양 및 기타 교양필수 강의를 이수하도록 유도하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주전공 및 다중전공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행계획

목표 |

기초교양강의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부담 완화
커리큘럼 변화를 통한 새로운 발전가치 창출

담당부서 |

총학생회 정책국

이행기간 |

2021년 2학기 이내, 2022년 1학기부터 시행

이행방법 |

타 대학들의 교양필수 과목 평가 방식 전환 사례 및 시행 전후 사례 분석
교무처 및 학사관리팀과 기초교양필수 강의 평가 방식 변경 논의
대학발전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기초교양필수 개편 안내 및 홍보

재원조달 및 예산추정 |

학교협약사항

수강신청제도 개선

배경 및 현황

C+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일정 학점 이내에서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강신청과는 달리 우선수강신청과 본 수강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여석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수강신청 대상자이지만 재수강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강신청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재수강을 미뤄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학사관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선수강신청 결과에서 여석을 알 수 없어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소한 변화에서부터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공약추진 방향

| 수강신청인원에 재수강자 전용 TO 설정

재수강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수강을 위해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들도 같은 교육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이며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학습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석이 발생하지 않아 계속해서 재수강을 미뤄야 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수강신청 인원 중 일정 인원을 재수강 전용 TO로 설정하여 학기마다 부족한 여석으로 인해 재수강을 미루는 일을 방지하겠습니다.

〈재수강 TO 적용 예시〉

① : 0/15 ② : 0/15 ③ : 0/10 ④ : 0/5 **재수강 : 0/5**

| 우선수강신청 결과 확인 시 잔여 여석 공개

우선수강신청 이후 깜깜이였던 강의별 남은 여석을 학생 여러분들께서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동안 일부 학생들의 수고를 통해 강의별 남은 여석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행계획

목표 |

수강신청 방식 개선으로 학생들의 수강신청 부담 완화
재수강 신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수강신청 접근성 확대

담당부서 |

총학생회 정책국

이행기간 |

2021년 2학기 이내, 2022년 1학기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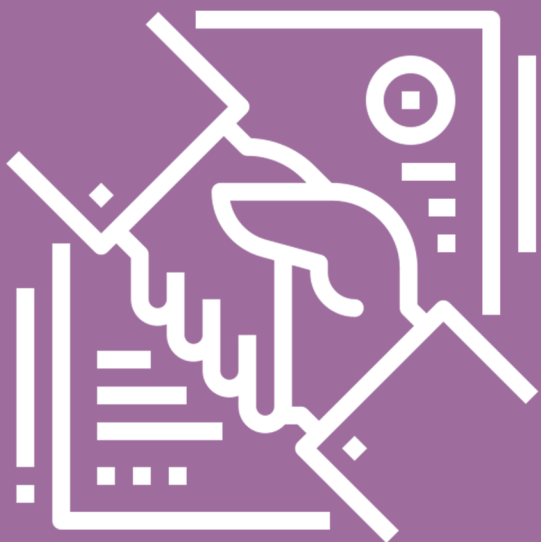
이행방법 |

재수강 TO 도입을 가정한 수강신청제도 개선 방안 수립
타 대학 수강신청 방안 사례 분석 및 비교
교수 및 단과대학 행정실 등 수강신청 담당자와 논의
교무처 및 학사관리팀과 수강신청제도 개선 논의
대학발전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수강신청제도 개편 안내 및 홍보

재원조달 및 예산추정 |

학교협의사항

협력 협상 공약



협력·협상 기조

학교본부를 대하는 학생회의 태도가 항상 대결과 투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발전이 항상 학생들의 손해가 아닌 것처럼, 총학생회의 투쟁이 항상 학생들의 이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 인하대학교의 발전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지양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학교본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언제나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대결구도를 조성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며 의결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대표자가 학생들의 환호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들은 오히려 학생들의 이권을 학교본부에게 헌납하는 것입니다.

학교본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학생대표로서 의결권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과 역량으로 학교와의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열세에 처해있다면 끈질기게 매달려서 단 하나라도 더 얻어낼 것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협력하고 협상하겠습니다.

고시반 확대

배경 및 현황

인하대학교의 고시반은 현재 공과대학의 인현재(기술고시 및 변리사), 사범대학의 선학재, 사회과학대학의 고시반(국가고시 및 국가공인자격증), 경영대학의 CPA 고시반 등이 존재합니다.

국가고시의 종류는 다양하며 타 대학의 경우 다양한 고시반을 운영하며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해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벌이 중요시되지 않는 국가고시의 경우, 합격자 수는 학교의 위상과 직결되므로 인하대학교의 위상 회복 및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종류	인하대	중앙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경희대	한양대
국가고시	교원임용	0	0		0	0	
	기술고시	0	0	0	0	0	0
	행정고시	X	0	0	0	0	0
	사법고시	X	0	0	0	0	0
	국립외교관	X	0	0	0	0	0
	법원행정 고등고시	X		0			
	기타	0					
자격고시	변리사	0	0	0	0	0	0
	공인회계사	0	0	0	0	0	0
	세무사	X	0	0	0		
	언론고시	X	0	0	0	0	0
	금융고시	X	0	0			0
	관세사	X	0		0		0
	공인노무사	X	0	0	0		
	감정평가사	X	0		0		
	법학전문 대학원	X	0	0	0	0	0
	기타	0					
합계	6	14	11	11	11	9	9

공약추진 방향

| 고시반 확충

지금도 미래를 준비하는 인하대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충분한 지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국가고시 및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인하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일 준비된 인재들이 존재합니다. 학교 위상에 걸맞게 학생들을 지원할 고시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반 수요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고시반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학적성시험 준비반, 언론고시반, 금융사준비반, 외교관 후보자반 등의 고시반이 신설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단과대학별로 분산된 고시반을 학교가 통합하거나 전공과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의 고시반 입실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고시반 지원 확대

인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는 고시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제공되고 있는 지원뿐 아니라 기숙사비 지원, 특강 실시 등 고시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반 공약은 학교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본부 이외에도 동문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 유치 방안을 고민하고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이행계획

목표 |

고시반 확충으로 인하대학교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위상 회복
고시 준비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로 학생들의 국가기관 진출 도모

담당부서 |

총학생회 정책국

이행기간 |

당선 즉시부터 대학발전위원회 종료 시까지

이행방법 |

단과대학 별 고시반 현황 파악 및 타 대학 고시반 지원 방안 사례 분석
학생지원처, 단과대학 행정실과 고시반 추가 개설 및 확대, 자격요건 완화 등
현행 고시반 운영 방안 개선 논의
학교본부 및 총동문회와 고시반 지원 확대 계획 논의
대학발전위원회 안건 상정

재원조달 및 예산추정 |

학교협의사항

셔틀버스 이용 개선

배경 및 현황

셔틀버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불편은 매 학기 나오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노선과 비정기적인 배차시간에 대한 민원이 자주 등장합니다.

김포 노선의 경우, 김포경전철이 개통했다는 이유로 지난 학기 셔틀버스 노선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포경전철 개통이 통학시간 단축에 영향을 주지 못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통학시간 단축은 없었습니다. 모두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셔틀버스 노선의 경우 학기마다 변동이 생겨 학생들의 셔틀버스 민원 1순위인 노선 설치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공약추진 방향

| 셔틀버스 GPS 설치

셔틀버스에 GPS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인하대학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셔틀버스 노선 수요조사

셔틀버스와 관련된 민원 중 1순위 민원은 바로 셔틀버스 노선입니다. 학생들의 통학이 학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나 통학으로 인한 피로감은 간접적으로나마 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상 한계를 고려하여 모든 노선을 운영할 수 없으며 한정된 노선만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매 학기 셔틀버스 통학 노선 결정 이전에 학생들에게 노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셔틀버스 이용률을 분석하여 셔틀버스 노선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시험기간 셔틀버스 연장 운영

시험기간 만큼이나 학생들이 학교에 오래 머물러있는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효율적인 시간관리 및 최상의 학습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기간 동안 셔틀버스의 연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이행계획

목표 |

셔틀버스의 실시간 위치 파악으로 셔틀버스 이용 학생들에게 편의성 제공
민원게시판 민원 1순위인 셔틀버스 노선 개편으로 통학 접근성 확보

담당부서 |

총학생회 정책국

이행기간 |

당선 즉시부터 2021년 12월 31일 임기 종료 시 까지

이행방법 |

셔틀버스의 이용률을 비롯한 현황 및 민원사항 파악
총무팀, 정보통신처와 셔틀버스 GPS 설치 및 설치 후 실시간 정보제공 방안 마련
셔틀버스 노선 개편 시 학생들의 셔틀버스 노선별 이용 현황 및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용률과 학생수요가 높은 노선부터 시범운영 실시
시험기간 셔틀버스 연장 운영 시 총무팀 및 셔틀버스 운영 회사와 논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노선들의 추가 배차 요구 및 운영시간 확정
대학발전위원회 안건 상정

재원조달 및 예산추정 |

학교협의사항

생활관 선발기준 재정립

배경 및 현황

인하대학교 생활관은 통학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통학권 30%, 비통학권 70%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통학권의 경우에도 통학권과 비교했을 때 통학시간 및 통학 방법이 차이가 없음에도 비통학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통학권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통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해 지역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선발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공약추진 방향

각각의 방안들은 모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선택해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학교와의 협상을 거쳐야 하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안 1) 통학-비통학권 구분 삭제 및 지역거리에 따른 선발기준 개편

현재 생활관 선발기준은 학점 성적이 유일한 기준이지만 통학 가능 여부도 사실상의 선발기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비통학권의 경우에도 통학이 가능한 파주시 거주 학생과 제주도 거주 학생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입사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통학권과 비통학권을 구분하지 않고 입사 선발 시 학점뿐 아니라 ‘지역거리’라는 기준을 신설하여 선발기준을 개편하겠습니다.

| 방안 2) 선발기준에 가계소득추가

비통학권에 거주하는 다수의 학생들은 학교 인근에서의 자취가 전제됩니다. 이러한 학생들 중에는 가계소득의 이유로 자취방 한 칸 구하는 것도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고려하여 가계소득 또한 선발기준으로 추가하여 정말로 생활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입사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안 2’는 ‘방안 1’과 달리 기존의 통학권-비통학권 구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비통학권 학생들에 한하여 선발기준에 추가될 것입니다. 학점 성적과 가계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선발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안 \ 기준	성적	통학/비통학	지역거리	가계소득	수도권/비수도권
기존	○	○	-	-	-
개편안 1	○	-	○	-	-
개편안 2	○	○	-	○	-
개편안 3	○	○	-	-	○

| 방안 3) 비통학권 내 ‘수도권-수도권 외’ 구분 및 선발 기준 차별화

비통학권을 수도권과 수도권 외로 구분하여 수도권 외에 해당하는 지방 거주 학생들의 경우 비통학권 수도권 학생들보다 학점 기준을 달리하여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절대적으로 거주지가 필요한 수도권 외 지방 거주 학생들에게 지방 학생 전용 TO를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공약이행계획

목표 |

생활관 선발 기준을 재정립하여 학생들의 주거부담 완화
통학권과 비통학권의 구분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관 이용
보장

담당부서 |

총학생회 정책국

이행기간 |

당선 즉시부터 2021년 2학기 이내, 2022년 1학기 생활관 입사부터 적용

이행방법 |

방안 1 : 통학권, 비통학권 구분을 삭제하고 학점 성적과 지역거리라는 기준을 통해
생활관 입사 기준 재정비

방안 2 : 현행 기준에서 가계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주거부담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
생들이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 구체화

방안 3 : 비통학권을 수도권과 수도권 외로 추가 구분
생활관 담당 부서와 생활관 입사 기준 재설정에 대한 학생 의견 청취, 다양한 입사
기준 검토 및 논의

재원조달 및 예산추정 |

학교협의사항

학사일정 변경 대응

배경 및 현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변경되는 학사일정은 그동안 학생들의 사정을 배려하지 못할 정도로 시행 코앞에 발표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못한다면 다음 학기에도 학사일정 변경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교육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습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두 가지를 함께 포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최선을 다해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약추진 방향

| 학교본부와 주기적인 코로나 대응 테이블 마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추이를 바탕으로 방역과 교육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주기적인 테이블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불편이 예상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본부와 충분히 논의된 뒤 시행될 것이며,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발표되도록 신속하게 공지될 것입니다.

| 학사관리 대응책 마련

온라인 수업 확대로 인해 예상치 못한 학생 여러분의 학습에 피해가 되는 사항은 신속하게 접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 접수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유행으로 인해 전면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최대 이수 학점을 확대하도록 하며, 등록금 및 장학금에 대한 논의에서도 학생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시기에 한정하여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학생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행계획

목표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인하대학교 구성원 간 협력 확대
방역과 학습의 공존 및 학생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담당부서 |

총학생회 정책국

이행기간 |

당선 즉시부터 2021년 12월 31일 임기 종료 시 까지

이행방법 |

총학생회-학교본부 코로나 대응 논의 테이블 구성
학교본부 위기대응 TF팀과 대응책 논의
방역 대책으로 발생하는 학생 불편 최소화
최대 이수 학점 확대 및 등록금 분할 납부 대상 기준 완화 등 학생 지원 방안 마련

재원조달 및 예산추정 |

학교협의사항
전염 상황에 따라 추가 재정지출 발생 가능



**인하대학교 제41대
총학생회 선거본부**